조선대 이진용 개인전 '금메달 명중'

광주여대 총장기 대학양궁선수권…이진용·김민서 혼성전서 동메달
김정훈 50m 우승…조선대·광주여대 단체전서 나란히 동메달 수확
컨디션 조절차 출전한 안산 금 1·동 1…광주 선수단 금 3·은 2·동 4

조선대 이진용이 '광주여대 총장기 제25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 대회'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진용은 18일 광주여대 잔디구장에서 올림픽라운드로 열린 대회 남대부 개인전 결승에서 황석민(배재대)를 세트 스코어 7-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대부 개인전에서는 김민서(광주여대)가 동메달을 수확했다.

김민서는 8강에서 강수빈(순천대)을 6-2로 꺾고 4강에 진출했으나, 이번 대회 여대부 개인전 우승자 임시현(한체대)에게 발목이 잡혀 동메달에 그쳤다.

이진용·김민서는 시도대항전으로 열린 혼성단체전에 광주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합작했다.

단체전에서는 조선대와 광주여대가 나란히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진용·김정훈·채진서·이원주가 팀을 이룬 조선대는 8강에서 한체대를 6-2로 제압하고 준결승전에 올랐으나 계명대에게 덜미를 잡혔다.

안산·김민서·오예진이 호흡을 맞춘 광주여대는 8강에서 안동대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 경희대를 상대로 슛 오프까지 접전 끝에 4-5로 패해 결승진출이 좌절됐다.

1세트를 54-56으로 내준 광주여대는 2세트 56대55로 균형을 맞췄으나 3세트에서 54-58로 세트를 내준 후 4세트에서 56-53으로 다시 4대4를 만들었다.

광주여대는 슛오프에서 29-29 동점을 이뤘으나 'X(엑스 10)'에서 밀려 아쉽게 동메달이 그쳤다.

남대부 결승에서 서원대, 여대부 결승에서 경희대를 꺾은 계명대는 남녀 단체전 동반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이번 대회 70m, 30m, 혼성단체전, 남대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서민기(계명대)는 대회 4관왕에 올랐다.

지난 16~17일 퀄리피케이션으로 열린 거리별 경기에서 조선대와 광주여대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다음 달 전국체전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차 대회에 참가한 안산은 30m에서 359점을 쏴 대회타이 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70m에서는 동메달을 따냈다.

광주여대 총장기 제25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광주 선수들. 유인선(앞줄 왼쪽부터)·이진용·김정훈·채진서·이원주. 김성은(뒷줄 왼쪽부터) 광주여대 감독, 김민서·김정윤·안산·박나윤·최예진·오예진·이동민 조선대 코치.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김민서는 70m에서 은메달을 보탰다.

김정훈은 남대부 50m에서 341점으로 금메달을 수확했고, 이진용은 30m에서 은메달을 보탰다.

광주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따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세' 박민지 시즌 4승

KLPGA KB금융 챔피언십 우승

박민지(24)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대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박민지는 18일 경기도 이천시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4라운드 합계 5언더파 283타로 우승했다.

이소영(25)을 4타차로 따돌린 박민지는 시즌 네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6월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우승 이후 약 3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 하나를 더 보탠 통산 14승 고지에 올랐다.

매이저대회 우승은 작년 한국여자오픈에 이어 두 번째다.

우승 상금 2억1600만을 받은 박민지는 시즌 상금이 10억4166만원으로 불어나 상금랭킹 1위를 질주했다. KLPGA투어에서 2년 연속 시즌 상금 10억원을 넘긴 선수는 박민지가 처음이다.

다승과 상금 경쟁에서 성큼 앞서간 박민지는 대상 포인트 순위도 유해란(21)에 26점차 2위로 올라섰다. 작년에 이어 상금, 대상, 다승 3관왕 2연패에 파란불을 켰다.

정윤지(22)에 1타 뒤진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박민지는 2번 홀(파4) 3퍼트 보기에 이어 7번 홀까지 버디를 하나도 잡아내지 못하는 답답한 경기를 했다.

8번 홀(파4) 두 번째샷을 홀 한 뼘 거리에 붙여 첫 버디를 잡아내 시동을 건 박민지는 13번(파3)에서 10m 버디 퍼트를 집어넣은 데 이어 14번 홀(파4) 2m 버디로 단숨에 선두로 올라섰다.

대유 위니아·MBN 여자오픈에 이어 시즌 2승에 도전한 이소영은 15번 홀(파5)에서 2.5m 버디를 잡아내며 1타차로 추격했다.

팽팽하던 승부는 17번 홀(파4)에서 갈렸다. 박민지는 두 번째 샷으로 홀 50㎝ 옆에 떨궜고, 이소영은 그린 옆 벙커 턱에 걸린 볼을 제대로 쳐내지 못해 1타를 잃었다.

3타차로 넉넉하게 앞선 박민지는 18번 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1m 거리에 붙인 뒤 버디로 우승을 자축했다.

이날 버디 2개에 보기 2개를 곁들인 이소영은 준우승 상금 1억3천200만원에 만족해야 했다. 3타를 줄인 임희정(22)이 3위(이븐파 288타)에 올랐다. /연합뉴스

페퍼스 어르헝 코리안 드림 '성큼'

귀화시험 합격…10월 개막 V리그 뛸 수 있어

친근한 이름으로 변경도 검토

AI페퍼스 체웬랍당 어르헝(18·목포여상 출신·사진)이 코리안 드림에 성큼 다가섰다.

페퍼저축은행은 "어르헝이 지난 1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귀화 면접 시험을 봤고, 이튿날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전했다.

몽골 출신인 어르헝이 한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오는 10월 개막하는 2022-2023 V리그에서 곧바로 뛸 수 있게 됐다.

어르헝이 데뷔하면 V리그 국내 최장신(194.5cm) 선수로 등록된다. 우월한 체격 때문에 페퍼의 높이를 보강할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들블러커(센터)인 어르헝은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의 미래자원으로 꼽힌다.

김형실 페퍼스 감독은 "스피드가 빼어나지는 않으나 미리 예측하고 플레이하는 센스가 있다"며 "차세대 국가대표 미들블로커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지도할 생각이다. 페퍼에서 성장하는 미래 국가대표를 보는 것도 광주·전남 팬들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력이 일천한데다 경기 경험이 없는 점은 한계다.

몽골 클럽에서 2년, 목포여상에서 3년 동안 훈련한 게 전부다. 게다가 페퍼 선수단과 함께 하면서도 귀화면접 시험 공부에 올인하는 바람에 그동안 연습을 하지 못했다.

김 감독은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경기에 출장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어르헝은 곡절 끝에 신인드래프트에서 AI페퍼스 지명을 받았다. KOVO 규약에 따르면 귀화 선수로서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 귀화 신청 후 귀화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전 구단의 동의로 귀화 절차 중인 선수는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르헝은 두번째 케이스로 페퍼스 지명을 받을 수 있었다.

2004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난 어르헝은 2019년 한국에 왔다. 당시 어르헝의 입학을 약속했던 우리나라 학교에서 차질이 빚어져 '미아'가 될 뻔 했다.

목포여상 정진 감독은 어르헝의 플레이를 담은 동영상을 보고 두 말 않고 목포여상에 입학시키고 조련했다.

어르헝은 KGC인삼공사 주전세터 염혜선(31·목포여상 출신)과 의자매다. 염혜선이 부모를 설득하고 입양한 덕분이다.

비시즌 때마다 모교를 방문해 후배를 응원하던 염혜선에게 목포여상 정진 감독이 권유한 게 인연의 시작이다.

김형실 감독과 구단은 어르헝이 팬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더 친근한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본인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한다.

아예 한국식 이름으로 새로 짓거나 닉네임을 정해 유니폼에 새기는 방안이다. V리그에서는 본명이 아닌 닉네임도 가능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대학장사씨름대회

22~25일 개최…3년만에 유관중으로 열려

44개 팀 300여명 참가

제14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가 3년 만에 유관중으로 개최한다.

18일 구례군에 따르면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구례군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제14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경기는 대학부 개인전 및 단체전, 여자부 개인전 및 천하장사전, 학생부개인전이 치러지며 44개 팀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3년 만에 유관중 대회로 경기장 관람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출입자 전원이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여자씨름의 메카인 우리 군에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여자씨름발상지로서 2009년부터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해 14년째 이어오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테니스 황제 '코트여 안녕'

페더러 다음주 레이버컵 끝으로 은퇴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41·스위스)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레이버컵 대회를 끝으로 은퇴할 것이라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5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많은 분이 알고 있듯이 지난 3년간 부상과 수술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경쟁력을 온전히 갖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 몸의 한계를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썼다.

이어 "저는 24년간 1500경기 이상을 뛰었고 테니스는 제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관대하게 저를 대해줬다"면서 "이제는 경력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

페더러는 "레이버컵은 남자프로테니스(ATP)에서 내 마지막 대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테니스를 하겠지만 그랜드슬램(메이저 4개 대회)이나 투어에서는 경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윔블던 이후 무릎 부상 등의 이유로 1년 넘게 공식 대회에 나오지 못한 페더러는 원래 9월 레이버컵과 10월 ATP 투어 스위스 인도어 바젤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또 올해 7월 윔블던 센터코트 10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한 번 더 윔블던에 뛸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2023년에도 선수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최근 무릎 부상과 40을 넘긴 나이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레이버컵을 끝으로 정들었던 코트와 작별하기로 했다.

1981년생 페더러는 최근 1년 반 사이에 무릎 수술을 세 번 받고, 치료와 재활을 반복해왔다.

페더러의 은퇴 무대가 될 레이버컵은 일반 투어 대회가 아닌 유럽과 월드 팀의 남자 테니스 대항전이다. 남자 골프의 미국과 유럽 대항전인 라이더컵과 비슷한 형식의 대회로 2017년 창설됐다.

페더러는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통산 20회 우승해 22회의 라파엘 나달(스페인)과 21회의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에 이어 최다 우승 횟수 3위를 달린다.

ATP 투어 단식에서 103차례나 축배를 들어 109회의 지미 코너스(은퇴·미국) 다음으로 많이 우승했고 투어 통산 1251승을 거둬 1274승의 코너스에 이어 다승 2위에도 올랐다.

페더러와 동갑인 1981년생 세리나 윌리엄스(미국) 역시 11일 폐막한 올해 US오픈을 끝으로 현역 생활을 마무리, 남녀 테니스 최강으로 20년 가까이 군림했던 두 '전설'이 나란히 올해 코트를 떠나게 됐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I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공조2: 인터내셔날
2관	공조2: 인터내셔날
3관	육사오(6/45), 9명의 번역가
4관	공조2: 인터내셔날
5관	공조2: 인터내셔날
6관	공조2: 인터내셔날
9관	육사오(6/45)
7관 씨네커플	헌트, 한산: 용의 출현, 오! 마이 고스트
8관 씨네커플	헌트, 블랙폰, 드래곤볼 슈퍼: 슈퍼 히어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_11시 음악산책
욕망과 고독의 자화상, 뉴욕
일시 : 2022. 9. 26.(월) 11:0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235

광주시립합창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가을저편
일시 : 2022. 10. 12.(수) 19:3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5